

## 20세기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 연구

정 유 경\* · 전 혜 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졸업\*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Comparative Study on the 20th Century French Fashion and Italian Fashion

Yu-Kyung Jung\* · Hei-Jung Chun\*\*

Maste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9. 28 투고)

#### ABSTRACT

In this study, to study the aesthetic properties of the Italy fashion, the internal fashion content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Italy and based on the definition, the external features are investigat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 was analyzed based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on the Italy culture. The aesthetical properties of the contemporary Italy fashion can be analyzed as follows:

- Functionalism is a feature showing the Italian cultural environment where the genuine humanism is retained. It enables the practical designs by applying details and materials that wouldn't put a limit to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 Naturalism focuses on the natural beauty of the human body without any artificial forms or exaggerated ornaments. Natural texture or materials are used to express the human body itself, or to emphasize the natural aesthetic effects flowing with the human body.
- Localism is the expression of folk spirit affect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It expresses local atmosphere by unique craftsmanship in material, pattern, color and details.

Based on this result, the aesthetic properties of the contemporary France fashion, examined through 'A Cultural Approach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the 20th Century French Fashion,' and those of the contemporary Italy fashion are compared.

Key words: functionalism(기능성), naturalism(자연성), localism(향토성)

## I. 서론

문화는 어느 특정한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신념·태도로서, 지리·기후·정치·역사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의 제도나 예술 등의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특히 패션은 오늘날 일상의 모든 영역을 통해 영감을 얻음으로써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즉 패션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나타나지만, 이는 내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통해 표출된 결과이다. 그래서 패션이 함축하고 있는 내적 의미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문화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첫째, 프랑스의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이중성으로 단순과 장식, 전통과 현대, 여성과 남성등의 대립되는 가치의 공존을 의미한다. 둘째,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 문양, 색상, 소재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다문화성으로 현대적 감각 또는 프랑스적 감각과 융합함으로써 재구성되어 표현된다. 셋째,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체를 하나의 조형공간으로 인식하여 고정개념을 파괴하는 새롭고 기하학적인 복식의 형태에 의해 강조되거나 신소재, 신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실험성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현대 패션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패션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의 배경과 추구하는 미의 특성은 비단 한 나라만의 패션 특성이 아닌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념과 이를 표현한 외적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의 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럽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이탈리아패션의 미적특성은 사회·문화적 개념의 접근으로 분석하여 프랑스 패션과 비교하는 것은 패션의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 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패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는데

본 연구가 보탬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접근 방법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sup>1)</sup>에 이어서,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외적 형식을 분석하여 두 나라 패션의 미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탈리아의 지리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으로 이탈리아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이 현대 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셋째, 「문화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를 통해 규명한 프랑스 패션이 이탈리아 패션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가?

연구 방법은, 이탈리아 문화에 관한 문헌 자료에 근거한 내용 분석적 방법을 통해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와 마찬가지로 19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가운데 그 명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있는 디자이너 5인 [Emilio Pucci(1950)·Valentino Garabani (1959)·Giorgio Armani(1970)·Gianni Versace(1978)·Gianfranco Ferré(1978)]을 선정하고 이탈리아 패션의 하이패션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수록한 그들의 작품 전집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단, 디자이너 死後에 만들어진 작품일지라도, 디자이너 고유의 정신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품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은 분석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 패션을 분석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대 패션의 '현대'라는 시기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대 이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 패션의 외적 형식을 분석하기 위

하여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 5인에 대하여, 1900년대 이후 등장하여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가운데 복식 분야의 작품 활동 시작 시점이 가장 오래된 디자이너 순서로 제한하였으며, 디자이너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인의 작품 전집이 출판된 디자이너로 한정하였다.

## II. 이탈리아 문화

본 장에서는 이탈리아 패션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문화의 형성 배경을 지리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 특징으로 분류<sup>2)</sup>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이탈리아의 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이탈리아 문화의 형성 배경

#### 1) 지리적 특징

이탈리아(Repubblica Italianan)는 유럽 대륙의 남부(북위 35°29'-47°05', 동경 6°37'-18°31')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3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유고슬라비아와 접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서쪽은 리구리아해·티레니아해, 남쪽은 이오니아해, 동쪽은 아드리아해에 둘러싸여 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국<sup>3)</sup>으로서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3대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중세 때부터 동방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중국의 비단 등 고급 직물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 및 직물제조기술 등을 습득하여 섬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은 기후 조건<sup>4)</sup>뿐만 아니라 인종의 구성, 지나온 역사까지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남부 지방의 경우, 중세 초기 비잔티움과 아랍 세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13세기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향권 하에 예속되면서 과거의 화려한 번영을 다시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sup>5)</sup>. 그러나 풍부한 수자원과 지중해성 기후는 염색 산업 발달에 중요한 요인

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탈리아의 돋보이는 색채 감각 및 감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북부 지방은 선진화된 산업화 지역에 근접하여 자본주의적 성장을 도모하였다<sup>6)</sup>. 특히 수출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 분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산업으로서 풍부한 예술적 전통과 공동체적 협동 정신이 빚어내는 문화적 유산을 경제에 접목시킨 힘에서 나온다<sup>7)</sup>. 이탈리아의 섬유 산업은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내는 종류의 산업이 아니라 고품질 정밀 세공 작업, 디자인·색감이 어우러진 세련된 미적 감각, 예술적 안목, 그리고 장인 정신이 융합된 특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다.

이탈리아는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의 이질적 전통을 통한 차별성뿐만 아니라, 반도의 복단이 알프스에 접해 있고 아페닌 산맥이 반도의 중앙부를 등 뻗어 내리고 있어서 영토의 개발과 연결을 가로막아 각 지역간의 문화와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는<sup>8)</sup>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세 이후부터 거의 모든 도시가 자치 국가를 형성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게 되는 이탈리아는 지방마다의 특유한 사회적·상업적·전통적 관습이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각 지역별로 도시국가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개성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 2) 사회적·정치적 특징

이탈리아는 폐쇄적인 지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각 주의 집합체적인 성격이 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 시민권의 자각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보다는 지역사회(Commune)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향토애를 '캄파넬리즘(Campanilismo)'<sup>9)</sup>라 한다. 특히 지역 사회는 혈연·친구·친지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업 간에도 혈연적인 연고로 인해 극히 폐쇄적 성격을 지닌 이른바 '산업 가족'이 존재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sup>10)</sup>. 가족 중심의 경영은

소규모적인 가내 수공업을 발달시켰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독특한 제품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근대 공업화 시대에는 급성장한 기업군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소규모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도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제품을 생산하여 규모를 확장시켜 갔다<sup>11)</sup>.

또한 이탈리아는 기계 기술을 중시한 결과 인간 그 자체가 바로 기술의 원천이며 전부라는 확고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기계 기술 이상으로 인간의 손에 체화된 기술을 중시한다. 따라서 컴퓨터, 로봇 등 기계화된 설비가 인간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전 공정에서 인간의 손이 중심이 되고 기계 설비는 단지 인간의 손작업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sup>12)</sup>. 또한 혈연·지연 관계를 중시하여 직업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에 대한 정착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동일업종·동일경력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로 동일 직종 내 이직이 거의 없고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더구나 일시적인 부(富)보다는 해당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장인적 기질이 강하고 수세대에 걸쳐 가업으로 계승한다는 전통이 기술자·기능인의 몸에 배어 있다<sup>13)</sup>. 이처럼 수공예를 통한 제작 방식을 가지 있게 여기는 이탈리아의 전통은 오늘날 기계 문명에 의한 부작용으로 지쳐버린 도시인과 현대인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이러한 장인 정신을 가진 풍부한 노동자원과 문화적 전통에서 연유하는 뛰어난 미적 감각이 더해져 패션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명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1858년 철학자 주세페 페라리(Giuseppe Ferrari)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혼돈과 분열의 역사, 즉 시민·정부·제도의 혼란 그 자체의 역사였다<sup>14)</sup>. 그러나 도시 국가 체제에 의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열은 서로 간에 생산적인 경쟁심을 일으키게도 했고 연대 의식을 느끼게도 했으며, 지역 전통이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도 하였다. 즉, 향토애에 기초한 지역주의는 지역 갈등의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중북부 이탈리아에서 보인 공화국 형태의 사회 유형은 현대적 의미에서 자율에 기초한 지방 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의 사회적·정치적 분열의 전통은 통일을 이룬 이탈리아가 최근에도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의 원인이 되었지만, 예상치 않게 이탈리아의 새로운 힘이 되는 개별적인 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sup>16)</sup>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3) 예술적 특징

앙드레 샤흐텔(Andre Chastel)이 “미술의 모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이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르네상스 미술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예술적 전통을 확립하게 된다. 르네상스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15·16세기를 지속한 고전적 모델의 영향 하에서 예술과 문학의 위대한 부흥’으로 정의된다. 이는 인간성의 재생(renovation huminis)과 인간을 고양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간주되며 또 고대의 부흥(renovation antique)으로 간주 된다<sup>17)</sup>. 이탈리아는 무의식 속에서 고대 문화유산을 삶의 배경으로 동로마 제국과의 연대 속에서 자신들의 옛 모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적 재건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었다<sup>18)</sup>.

르네상스 미술은 고대 미술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의 완벽을 통해 비례·균형·조화를 이루는 조형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사상을 반영한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문주의 정신을 갖고 하였으며,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술가 스스로 탐구적인 자세로 과학과 이성 세계를 섭렵하면서 창조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과 예술의 관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설정되어 그 위상이 정립되었고, 15·16세기 이탈리아에서 창작 작가·작품이라는 용어가 최초

로 쓰여 졌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서명하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각지에 퍼진 인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술가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즉, 작품에 기록을 남기어 후세의 고증 자료로 남겼으며 예술이 장인의 일로 취급받는 데에서 벗어나 교양 있는 사람의 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에 경의를 표시하게 되었고 예술의 사회적 위치가 격상되었다<sup>19)</sup>.

이탈리아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이탈리아의 자유와 함께 사라졌으며, 16세기가 저물어 가면서 알프스 산맥 이북 지역은 13세기 말 이래 이탈리아가 자랑해온 문화적 헤게모니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이후, 이탈리아가 정치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화려했던 예술의 번영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르네상스 미술에 새로운 표현력을 부여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술적 또는 감성적 표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의 장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를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었다.

#### 4) 종교적·철학적 특징

펠리니(Fellini)는 “이탈리아인들의 절반은 카톨릭 신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고 믿는다!”<sup>21)</sup>라고 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와 카톨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톨릭 이념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포한 밀라노 칙령 이래로 이탈리아 반도에 그 영향을 미쳐왔으며, 교회와 교황은 카톨릭 이념과 정신을 수호하는 상징이었다. 카톨릭은 이탈리아 예술의 증거이며, 오늘날 지역적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지나친 향토애로 인해 정신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을 하나의 고리로 엮어주는 정신적 끈이 되고 있다.

14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고전 연구를 통하여 재생 감정을 표명하는 것으로 르네상스를 출현시켰으며, 고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상의 추구로

휴머니즘이 출현한다. 선각자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문예, 이른바 이교적인 고전 연구를 통하여 인간 이상을 추구하고 휴머니즘을 구현하면서 그 중심을 인간의 존엄이라는 대목에 두었다<sup>22)</sup>.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대의 형식과 정신이 부활하는 것이며 역사에서 인간의 위치와 세계의 새로운 개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고전 인문주의의 숭배, 인간에 대한 관심, 능동적이고 세속적인 도덕관이라는 세 가지의 지적 특성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르네상스가 당면했던 과제는 인간적 가치와 인간적 문제였다<sup>23)</sup>.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 정신 운동이었던 르네상스의 중심에는 ‘휴머니즘’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휴머니즘의 명칭은 인문학(Studia Humanitatis)<sup>24)</sup>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 및 그것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비서, 서기 등의 직업인들을 휴머니스트(Humanist)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다<sup>25)</sup>. 또한 휴머니즘(Humanism)이란 말은 원래 인간성·인간미를 뜻하는 라틴어 휴마니스타(humanista)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는 본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고유의 이성·자유·박애·행복의 추구 또는 여기에 인간적 정의 및 본능적 욕구 등의 의미를 더한 인간성 전체의 조화적 발전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서 고대 희랍과 로마의 문학·예술·종교·철학·과학 등에 관한 자유롭고 활발한 탐구를 강조하였다<sup>26)</sup>. 따라서 휴머니즘 사상의 중심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였고 자유로운 탐구와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특성은 중세의 신·자연·인간관과의 결별을 의미하며, 새로운 개념의 신·자연·인간관을 형성함으로써 현대 사상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중세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존재는 그의 신체적·자연적 측면이 무시된 채 정신적·영적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하나의 전체적 구조의 연관 안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경향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자연적 측

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sup>27)</sup>. 즉, 인체가 가지는 자연적 특성을 평가 절하시킨 중세와는 다르게, 휴머니즘 사상을 통해 이성·영혼·정신 못지않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인체가 지니는 아름다움과 신체적 측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사상은 인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과학과 기계 기술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확성, 엄밀성, 관찰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학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예술에 있어서 그 표현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sup>28)</sup>. 보다 과학적인 사고와 해부학의 발전을 통해 인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오바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인간이 자유선택에 의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명제<sup>29)</sup>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자유, 자율, 인간 자신의 자기규정 능력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 능력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덕목을 위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중시하였으며, 창조적 발상과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개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 2.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

### 1) 인본주의

분열과 전쟁의 연속이었던 이탈리아가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유럽의 중심지로서 그 역량을 펼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근대 유럽 문화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르네상스였다..

르네상스를 두고 사람들은 근대의 시작 내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한다. 중세의 중심이 된 학문이 신학 이었다면, 르네상스의 학문은 인문학·휴머니즘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가 그 중심이었다. 즉, 르네상스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재

적 가치를 과제로 삼은 인본주의 사고에 있었다. 수백년 동안의 문화적 암흑기와 야만적인 무지의 세월을 거치고 나서 의식하게 된 새로운 삶의 주체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각성은 곧 인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간 약탈되었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 고전을 연구하여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였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삶을 택하였다<sup>30)</sup>.

인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그 중심 가치로 두고 있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은 과학과 기계 기술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엇보다 인체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관찰하는 해부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통해 예술에 있어서도 그 표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인체가 가진 자연적 특성, 즉 인체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봉건 사회의 구조나 엄격한 틀에 짜여진 사고방식을 통한 중세의 획일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덕목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즐거움을 모색하고자 하며 사고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러나 북유럽 각국에서는 이탈리아의 휴머니즘 가운데 각국의 필요에 부합해 보이는 부분만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정신과 진정한 뿌리는 이탈리아에 남아 있다<sup>31)</sup>고 볼 수 있으며, 현대의 이탈리아 문화 전반에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 2) 향토애(Campanilismo)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국이면서 아페닌 산맥이 반도의 중앙부를 뻗어 내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지리적·지형적 특성은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의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간의 개별적인 문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 반도 내에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교황령 국가는 역사적으로 주변에 강력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리아를 내부적인 대립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이탈리아는 역사상 단 두 번 완전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한번은 고대의 로마 제국 시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의 통일이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도시 국가의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이를 통해 개성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 국가의 체제는 이탈리아의 통일은 방해했지만, 지역 간에 생산적인 경쟁심을 일으키게도 하고 연대 의식을 느끼게도 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새로운 힘이 되는 개별적인 문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통일된 반도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에는 뿌리 깊은 지역 문화의 집합체적인 성격으로 인해 국가라는 공동체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역 사회(Commune)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성격, 이른바 향토애라고 하는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비록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지리적 영역에 대한 일체감 또는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나치면 지역감정, 지연(地緣), 배타주의와 다를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반대로 이탈리아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문화적 특성인 것이다. 즉, '향토애'는 다양성과 배타성의 양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sup>32)</sup>, 이는 자유로운 창조적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이탈리아만의 전통과 고유성을 고수하려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 3) 장인 정신

이탈리아는 인간 그 자체가 기술의 원천이며 전 부라는 확고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손에 체화된 기술을 중시한다는 의미로서 이탈리아의 폐쇄적인 지역 문화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혈연·지연 관계가 중시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 중심의 경영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가족 중심의 경영은 소규모적인 가내 수공업 발달시켰으며, 수 세대에 걸쳐 가업으로 계승한다는 전통이 기술자 또는 기능인의 몸에 배어 이탈리아인의 장인적 기질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탈리아의 전통은 소규모 가내 수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예술 분야 발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미술이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정

〈표 1〉 이탈리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의식 속에서 고대 문화유산은 삶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르네상스의 발생지</li> <li>· 근대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li> <li>· 르네상스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만 휴머니즘의 가장 순수한 정신과 진정한 뿌리는 이탈리아에만 남아 있음</li> </ul>	인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페닌 산맥이 반도의 중앙부를 뚫어 내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과 반도 내에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교황령 국가의 영향으로 인해 개별적인 지역 문화를 형성하게 됨</li> <li>· 도시 국가의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지역 문화를 촉진시킨</li> <li>· 뿌리 깊은 지역 문화의 집합체적인 성격으로 인해 지역 사회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성격을 띠게 됨</li> </ul>	향토애 (Campanilis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적인 지역 문화에 의해 혈연·지연 관계가 중시되고, 이를 통해 가족 중심의 경영 발달, 소규모적인 수공업 발달</li> <li>· 기술자 또는 기능인들이 자신의 일을 수 세대에 걸쳐 가업으로 계승한다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li> <li>· 기술과 정신이 함께 작용하는 미술 활동의 밑거름이 되어 르네상스 예술의 찬란한 결실을 이루게 됨</li> <li>· 국가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전개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장인 정신의 명맥은 현대에까지 이어짐</li> </ul>	장인 정신

받지 못했던 중세에, 화가들은 교회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적당한 상징을 개발하는 기술인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지성과 과학을 통한 예술의 창조성을 규명하면서 화가나 조각가들은 수공업적인 장인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예술 작품이 기술적 성과물이 아닌, 예술가의 정신이 투영된 하나의 표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의 사회적 위치가 아무리 격상되었다 하더라도, 예술은 기술과 정신이 함께 작용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미술의 찬란한 결실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은 그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르네상스의 막이 내려지면서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받게 되었고, 18C 초에는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두 나누어 분리 된다<sup>33)</sup>. 이러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는 더 이상 르네상스와 같은 예술의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어 졌으며, 더욱이 르네상스를 통해 이룩한 예술적 표현, 즉 정신세계의 표출 또한 다양하게 전개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통으로 계승되는 장인 정신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기계화에 의한 단조로움이나 무미건조함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감성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Ⅲ. 20C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을 이탈리아 현대 패션의 내적 의미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외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기능성(Functionalism)

기능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작용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협의로는 유용성 또는 합복

적성의 편리와 관련되는 구조상의 명확한 표현인 물리적 기능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색적인 합리주의 정신에서 미(美)라는 문제를 취급했던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공예에서는 물론 건축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것과 유용한 것을 동일시하였다<sup>34)</sup>.

이러한 관점에서 르네상스의 발생지인 이탈리아에서는 고대의 형식과 정신의 부활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 이른바 인간 중심적 사고의 개념이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주의 미학이 중시되고 있다. 즉, 이탈리아 패션은 표면의 장식이나 과장된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체를 구속하여 활동을 제한하여서라도 복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보다는, '인간'이라는 가치 기준이 중심이 되어 인체가 복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동시에 인체의 활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모델을 위한 옷을 만들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 뿐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패션 철학을 통해 군더더기식 장식은 가급적 없애고 기능성과 세련된 우아함을 살리고자 하였다<sup>35)</sup>.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남성만이 착용하던 파워풀한 유니폼을 전문직 여성에게 선사하여 남성복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기능주의를 접목시켰는데, 남성성을 상징하는 경직된 비즈니스 슈트 대신 팻팻한 심지가 제거된 부드러운 재킷을 통해 남성복 테일러링을 여성복에 적용시켰다.

"나의 옷은 자유와 편안함을 요구하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인체에 입혀지기 위해 만들어졌다"<sup>36)</sup>고 말한 페레(Gianfranco Ferré) 또한 건축학적인 개념을 토대로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논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구축적인 조형적 특성과 더불어 유연하고 편안함을 강조한 기능적 특성이 그의 디자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의 경우도 가죽 소재의 짧은 팬츠와 벨트, 성근 조직의 비치는 효과를 이용한 오간자 블라우스를 통해 활동적인 면을 강



조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벨트는 기능적 역할보다는 하나의 장식 액세서리로서 부각되고 있다.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는 'resort look'의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통해 육체적인 자유로움과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함께 표현하였다(그림 3).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복식의 기능은 실질적인 기능의 역할과 함께 현대의 기능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림 4>는 중국풍의 문양이 화려하게 프린트 되어 있는 Versace 작품의 라이크라 투피스이다.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성 소재와 스판덱스는 몸에 밀착된 형태로 인체의 활동적인 면을 강화하여 의복이 그 자체로 편안하고 자유롭다. 스트레치의 미는 기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직물 자체의 유동적인 특성과 함께 현대미에 새로운 개념을 더하고 있다<sup>37)</sup>.

이처럼 이탈리아 패션은 가장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복식이 아닌 입어서 편하고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식의 실용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능적 특성이 나타난다.

## 2. 자연성(Naturalism)

자연주의는 자연의 대상을 양식화하거나 관념적 표현을 행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예술 제작 태도<sup>38)</sup>이다. 고대는 자연주의가 풍성한 수확을 올린 시기로 자연에 대한 자각은 고대 그리스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sup>39)</sup>. 그리스 이상주의는 현실에 있는 자연을 떠나 관념의 세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에 있는 자연에 근거하여 자연 그 자체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잡으려고 의도하였다<sup>40)</sup>. 그러나 중세를 거치는 동안 자연의 개념은 신이 창조한 사물의 세계로서<sup>41)</sup> 종교적 의미만을 내포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시대는 르네상스인데, 그리스·로마의 예술 양식을 모방하여 그대로 재현하려 했으므로 자연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객관적 규범을 추구하였다<sup>42)</sup>.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의 생을 찬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찬양하였으며,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sup>43)</sup>.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문화유산을 삶의 배경으로 삼으며 르네상스의 진정한 뿌리가 남아있는 이탈리아의 패션은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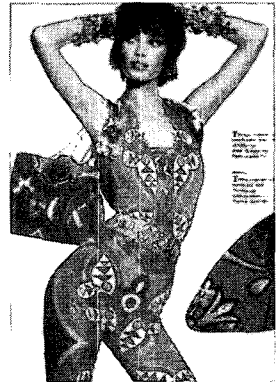
<그림 1> Giorgio Armani,  
Left: S/S 1998, Right: F/W  
1995-96,  
GIORGIO ARMANI, p. 144.



<그림 2> Gianfranco Ferré,  
S/S 1993,  
Gianfranco Ferré



<그림 3> Emilio Pucci,  
1950년대 중반,  
PUCCI, p. 65.



<그림 4> Gianni Versace,  
S/S 1991,  
VERSACE, p. 66.

인체 자체를 표현하거나, 소재의 활용을 통해 자연적인 미적 효과를 표현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아르마니는 “패션이란 청결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청결하다는 것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인간과 의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옷을 입고도 입지 않은 듯 자연스러워야 하고, 지적이면서도 우아하고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몸에 옷이 흐르도록 하려면 좋은 소재와 재단이 대단히 중요하다”<sup>44)</sup>라고 하였다. 이는 입고도 입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지적이며 우아한 의상을 추구하는 그의 패션 철학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림 5>는 불필요한 장식의 절제와 성근 조직에 의한 모직 플란넬 소재의 신축성을 이용함으로써 인체와 복식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하여 여성의 우아한 곡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니트나 스판덱스와 같이 신축성 있는 소재는 인체의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여 인체의 곡선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복식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성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페레가 F/W 98-99에 발표한 <그림 6>은 인체와 피부를 제2의 복식으로 인식하여 소재의 비치는 효과를 응용한 드레스이다. 드레스 위에 프린트된 자연의 대상물은 마치 타투(tattoo)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 7>은 여성 인체의 곡

선미를 과장되게 강조함으로써 자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가죽 투피스이다. 즉, 복식의 자연적 특성은 인간의 육체가 가장 완벽한 조형물임을 전제함으로, 완벽한 인체의 가슴·허리·힙과 같은 성적 부위가 강조됨으로써 관능적 이미지가 함께 표현되기도 한다. 베르사체(Versace) 작품의 <그림 8>은 비늘 같이 주르륵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메탈 편물을 사용한 드레스로, 인체의 축소나 과장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적절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자연적 형태의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패션은 인위적 형태와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드레이프성이 강하거나 인체의 곡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자연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추출된 색상과 자연요소적인 문양의 활용을 통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3. 향토성(郷土樣式)

타우트(Bruno Taut)는 “일반적으로 건축 작품에 이른바 음색(音色)을 갖는 실제적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이며, 다른 요소들은 모두 여기에서 생긴 부속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그림 5> Giorgio Armani, F/W 1998/99, ARMANI, p. 152.



<그림 6> Gianfranco Ferré, F/W 1998/99, Gianfranco Ferré



<그림 7> Gianfranco Ferré, S/S 1988, Gianfranco Ferré



<그림 8> Gianni Versace, S/S 1983, VERSACE, p. 195.

이 바로 '풍토'이다"라고 하였다. 풍토를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조·우량·토양·풍향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입지 조건이다. 그러나 예술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풍토이며 '정신적·철학적' 풍토를 의미 한다. 즉, 풍토는 단지 물리적 풍토가 아니라 역사를 가진 풍토, 인간의 정신적 귀속인 풍토이어야 한다<sup>45)</sup>.

이러한 관점에서 타우트는 건축에서 풍토와의 균형을 제1의 요건으로 들었고,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근대 건축에서 정신이 제1의 문제이며 기계 생산인 '망치와 못'은 제2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기술이 지방적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향토 양식은 인간 정신의 당연한 향수로서 그 역사의 시각적 투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재질감은 본디 수공적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계적인 재질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건축에 한한 것이 아니라 공예 전체에 관한 문제이며 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오랜 기간 도시 국가의 체제로 개별적인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이탈리아는 현대에도 지역 사회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각 지방 특유의 자연과 풍속에 영향을 받은 향토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복식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그림 9>에서와 같이 소재·문양·색채·디테일·트리밍 등에 있어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수공예적인 기법, 이른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에 의해 표출되는 독특한 지방의 색깔이다. 즉, 물리적·철학적·정신적 의미를 포괄하는 지역적 특색이 장인 정신과 결합하여 지방 고유의 향토적 특성으로 부각된다. 베르사체는 "내 고향 칼라브리아는 옛날부터 그리스와 로마, 동쪽의 비잔틴, 북쪽의 게르만 문화 등 모든 문화가 만났던 곳이었고 모든 민족이 거쳐 간 곳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 모든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지금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sup>47)</sup>라고 하면서 이국적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그림 10>에서 가죽 스커트와 매치한 블라우스는 인디언 문양이 프린트 되어 있다. 또한 그가 자란 남부 이탈리아의 해변가 지방은 그리스 신전의 폐허를 간직하고 있는 곳<sup>48)</sup>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를 자신의 브랜드 심볼로 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지역적 풍토를 패션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sup>4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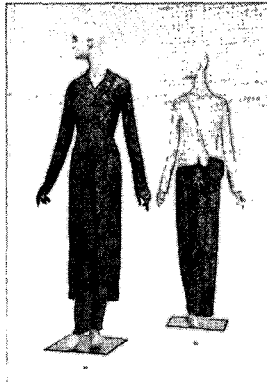
17세기 유럽 각국은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오랫동안 지중해 연안에 많은 무역 중심지들을 소유했던 이탈리아의 베니스(Venice)와



<그림 9> Giorgio Armani, *GIORGIO ARMANI*, p.87.



<그림 10> Gianni Versace, F/W 1992/93, *VERSACE*, p. 107.



<그림 11> Giorgio Armani, L:F/W 1990/91, R:F/W 1990/91, *GIORGIO ARMANI*, p. 193.



<그림 12> Valentino, F/W 1970/71, *VALENTINO's magic*, p. 249.

제노아(Genoa) 지역은 극동의 문물과 직물을 받아들이는 중심지였으며 동양 복식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sup>50)</sup>.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각 지방들은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이 스며들게 된다. 따라서 각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민속 복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며, 민속 복식에서 보여 지는 이국적 요소들이 현대 복식에서도 종종 인용되어 나타난다. <그림 11>은 복식의 문양과 형태, 착용한 액세서리 등에서 중국·네팔·인도네시아의 민속복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국적인 취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는 페르시아 고유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Valentino 작품으로서 소재의 문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까지도 페르시아 민속복식의 영향을 받은 드레스이다.

이처럼 지방 특유의 색깔과 이탈리아 수공예 기술의 접목을 통해 나타나는 이탈리아 패션의 향토성은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

는 프린팅·비즈·자수 기법, 동양적 취미가 반영된 문양, 민속복에서 착안한 형태 등을 통해 나타난다.

#### IV.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 비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럽 지역 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과 사회 구조 속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각자의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패션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나 표현되는 특성이 시각적 형태로 차별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 패션은 첫째, 이성과 감성, 전통과 현대, 남성과 여성 이라는 상반된 두 축이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며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성적 표현 방식은 절제

<표 2>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 비교

문 화		이탈리아 문화			
문화적 특성		인본주의		향토애	장인 정신
내용		기능성	자연성	향토성	
형식					
특 징	입어서 편하고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식의 실용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추구함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한 것으로, 인체 그 자체를 표현하거나 인체를 따라 흐르는 자연적인 미적 효과를 강조함		지방 특유의 향토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으로서 이국적 취미의 반영이나 수공예 기술의 접목을 통해 나타남	
형 태	-단순·직선적 실루엣 -루즈(loose)한 형태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인체의 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형태		-민속복에서 착안한 형태	
색 채	-단색의 중채도 계열이 주 -다채로운 색채를 믹스하여 활동적 이미지 연출	-자연으로부터 추출되는 색상의 조화 -뉴트럴 계열의 색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풍토에 의해 나타나는 지방 특유의 색채	
문양 및 재질	-니트나 스판덱스와 같이 신축성 있는 소재 -면이나 울과 같이 실용성을 겸비한 천연 소재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 -스트레칭성 소재 -천연 소재에서 느껴지는 자연적 질감 -자연의 대상물을 그대로 재현한 문양·동물의 가죽 문양		-수공예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독특한 재질 -이국적 취향이 반영된 문양	
디테일	-비장식성 -큰 포켓, 자켓 후드	-바이어스 재단을 통한 소재의 흐름선 강조		-수공예 제작 기법: 서링·폴리츠·아폴리케·자수·프린팅 등	
트리밍	-단추·지퍼 등	-최소화된 트리밍		-비즈·자수·타슬·브레이드·민속복식에 함께 연출되는 액세서리 등	

되고 간소한 단순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감성적인 표현 방식은 과장되고 역동적인 장식미로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 패션에 나타나는 단순과 장식의 이중적 특성은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복식 속에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태 위에 셔링·플리츠·자수·비딩·리본과 같은 디테일과 트리밍이 장식적 요소로 부가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형태 또는 혁신적인 시도를 추구하는 현대적 특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전통적 특성으로 정착되는 특징을 보였다.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프랑스의 오랜 관행은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나 파스텔 색채, 비딩·자수 장식을 통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식과, 남성성이 내포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여성복에 표현하기 위하여 남성복 스타일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한 실용적 디자인이 함께 나타났다.

둘째, 지리적 또는 정책적 특성에 의한 개방적인 성향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여 이를 복식에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세계 각국의 민속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민속복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문양·색채·형태에 도입하여 현대적인 감각 또는 서구적 감각과 융합시킴으로써 재구성한다.

셋째, 획일적인 표현 방식을 지양하고 언제나 새롭고 다양한 취미의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는 프랑스 문학과 예술계의 영향으로 과거의 사고 체계나 전통을 뒤엎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패션을 창조한다. 특히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새롭고 기하학적인 복식의 형태나 신소재·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통해 표현된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근대적 사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발생지로서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뿌리의 르네상스 정신, 이른바 인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르네상스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심 가치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인체의 아름다

움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하나의 구조 연관 안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현대 이탈리아 문화 전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탈리아 패션이 첫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에서 '미'의 문제를 취급하는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단순하면서도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루즈(loose)한 형태 또는 스트레치성 소재를 통해 인체를 복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동시에 인체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둘째,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는 인체를 인위적인 형태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양과 색채를 통해 복식의 자연미를 강조하는 패션 특성으로 표출된다. 즉,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자연적인 실루엣이나 인체의 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형태,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색상이나 자연의 대상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문양은 이탈리아 패션의 자연적 특성을 표현한 디자인 형식이다.

셋째,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지역 문화에 의해 형성된 향토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장인 정신을 통해 지방 특유의 자연과 풍속에 영향을 받은 향토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으로 복식에 반영된다. 특히 이탈리아의 각 지방들은 17세기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 민속 복식에서 보여지는 이국적 요소들이 현대 복식에서 형태·문양·디테일을 통해 인용되어 나타난다.

이상을 종합해 본 결과,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외형적 특성은 다소 일치하거나 상통하는 면이 나타났다. 즉, 단순한 형태를 통해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점이나, 민속 복식의 요소를 도입한 이국적 취미의 반영은 그 내적 의미가 다르게 규명되었지만, 비슷한 외적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랑스 패션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는 욕구나, 남성적 힘을 상징

하는 남성복식의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하여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적 특성이 이탈리아 패션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패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미를 추구하는 기능적 특성이 프랑스 패션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패션 선진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처럼 문화적 전통을 통해 그들의 고유한 패션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은 이미 보편적인 미로 정착하여 세계적인 미의 가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전통은 쉽게 모방되거나 단기간 내에 형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패션의 가장 본질적인 내적 의미와 그에 따른 외적 형식은 그 문화권 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V. 결론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이탈리아 문화의 형성 배경을 통해 고찰한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생지로서 인간에 대한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휴머니즘이 가장 순수하게 남아 있으며, 현대 이탈리아 문화에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통일된 반도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에도 뿌리 깊은 지역 문화의 집합체적인 성격으로 인해 지역 사회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성격, 이른바 향토에라고 하는 문화적 특성이 나타난다. 셋째, 혈연·지연 관계가 중시되는 이탈리아의 지역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경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소규모적인 가내 수공업을 발달시켜서 수 세대에 걸쳐 가업으로 계승한다는 전통이 기술자 또는 기능인의 몸에 배어 인간 그 자체가 기술의 원천이며 전부라는 장인적 기질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이탈리아 현대 패션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성은 가장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이 이어지

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입어서 편하고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형태나 인체의 활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소재·디테일을 통해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특성이다. 둘째, 자연성은 인위적 형태와 과장된 장식을 피하여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한 것으로,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를 활용하여 인체 그 자체를 표현하거나 인체를 따라 흐르는 자연적인 미적 효과를 강조한 특성이다. 향토성은 지방 특유의 자연과 풍속에 영향을 받은 향토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소재·문양·색채·디테일에 있어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수공예적인 기법에 의해 지역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외형적 특성은 다소 일치하거나 상통하는 면이 나타났다. 즉, 단순한 형태를 통해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점이나, 민속 복식의 요소를 도입한 이국적 취미의 반영은 그 내적 의미가 다르게 규명되었지만, 비슷한 외적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랑스 패션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움을 모색하고자 하는 욕구나, 남성적 힘을 상징하는 남성복식의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하여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적 특성이 이탈리아 패션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패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미를 추구하는 기능적 특성이 프랑스 패션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의 외형적 특성은 문화적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표현된다. 즉, 문화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과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상통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다 부각시키면서 그들만의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보급시킨 것이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개성을 근거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현대는, 특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이 혼재해 나타나지만, 패션은 복잡하고 모호한 특성 속에서도 문화의 고유한 내적 의미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의 문화 선진국

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도 한국만의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독특한 패션을 육성하되, 패션의 세계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패션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정유경·전혜정 (2006). 문화적 접근방법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특성연구. 복식, 56, pp. 81-96.
- 2) 문화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 가령 지리·기후·정치·역사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의 제도나 예술 등의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Huntington, Samuel P. & Harrison, Lawrence E. 저, 이종인 역 (2001).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p. 33.
- 3) 안기철 (1986). 이태리 경제와 기업 진출 환경. 서울: 산업 연구원, 1986, p. 147.
- 4) 북부는 대륙성 기후이고 중남부 및 도서(島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다.
- 5) Christopher Duggan 저, 김정하 역(2001). 미완의 통일 이탈리아사. 서울: 개마고원, p. 29.
- 6) 김시홍 (1995). 이탈리아 사회 연구 입문. 서울: 명지출판사, p. 228.
- 7) 윤종태·허윤희 (2001). 이탈리아, 이탈리아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 119.
- 8) *Ibid.*, p. 275.
- 9) 어느 마을에나 있는 교구 대성당 건물에 붙어 있는 종탑·종루를 나타내는 '감파nil (Campanile)'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고장에서 제일 높은 곳인 종탑 위에서 보이는 곳까지의 지리적, 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일체감이나 사랑을 의미한다.
- 10) 안기철. *op. cit.*, p. 147.
- 11) 김희정 (1995).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10.
- 12) 백권호 (2000). 이탈리아 패션 산업 경쟁력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유럽 연구, 11, p. 188.
- 13) 김희정. *op. cit.*, p. 40.
- 14) Christopher Duggan 저, 김정하 역. *op. cit.*, pp. 7-13.
- 15) 김시홍. *op. cit.*, p. 47
- 16) A. Chastel (1999). *Renaissance Italienne 1460-1500*. Paris: Ed. Gallimard, p. 24.
- 17) W. Tatarkiewicz (1970). *History of Aesthetic*, Vol. III. Warszawa: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P. 35.
- 18) 임영방 (2003).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5.
- 19) *Ibid.*, pp. 77-79.
- 20) Charles G. Nauert 저, 진원숙 역 (2003). 휴머니즘과 르네상스 유럽 문화. 서울: 해안, pp. 218-219.
- 21) Michel Pierre 저, 김이정 역. *op. cit.*, p. 126.
- 22) 임영방. *op. cit.*, pp. 52-53.
- 23) 전미연 (1992). '인간성' 개념을 중심으로 본 이탈리아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회화.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 24) 시학, 수사학, 역사학, 문법학, 도덕 철학 등을 의미한다.
- 25) Paul Oskar Kristeller (1980). *Renaissance Thought and the ar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2.
- 26) 신구현 外 (1990).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p. 66.
- 27) 신구현 外. *op. cit.*, p. 122.
- 28) *Ibid.*, p. 49.
- 29)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996). *Oration on the Dignity of Man*. in E. Cassirer et al.(eds. & trans.), pp. 223-225.
- 30) 임영방. *op. cit.*, p. 32.
- 31) Charles G. Nauert 저, 진원숙 역. *op. cit.*, p. 231.
- 32) 윤종태·허윤희. *op. cit.*, p. 23.
- 33) *Ibid.*, p. 20.
- 34) 하지수 (2002).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복식, 52(5), p. 157.
- 35) 주간 조선. 1659호
- 36) Gius Ferré·Samuele Mazza (1998). *Gianfranco Ferré*. Italy: Gingko Press
- 37) 조경희 (1999).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스트레치 미 연구. 복식, 46, pp. 67-78.
- 38) 이주연 (1992). 라파엘로 전파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2.
- 39) 김지현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
- 40) 조규화 (1989). 복식 미학. 서울: 수학사, p. 35.
- 41) 이현숙 (1989).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 100.
- 42) 김지현. *op. cit.*, p. 6.
- 43) 이순홍 (1996).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유형과 그 발생 배경에 관한 연구. 복식, 30, p. 277.
- 44) 주간 조선. 1659호
- 45) 조규화. *op. cit.*, pp. 63-66.
- 46) *Ibid.*, pp. 65-66.
- 47) 월간 멋 10월 (1991).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비밀. 동아일보사, p. 307.
- 48) ELLE 3월 (1994).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화시키는 신고전주의자, 지아니 베르사체, p. 205.
- 49) 박보윤 (1998).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5-16.
- 50) 이춘희 (1998). 현대 복식에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6.